

※ 기존 품을 준수하되, 형식과 분량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파견국가 및 대학 상해외국어대학교
◇ 파견기간 7월6일~8월5일
◇ 출국 전 준비과정 (상세비용/비자발급/항공권/보험/팁등) 상세비용: 항공료 440,000원 중국비자 90,000원 보험료 20,000원 수업료 및 기숙사 약 1,100,000원 생활비 500,000원 비자발급/항공권/보험: 항공/비자/보험은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일괄 발급받고, 생활비는 50만원을 우선 환전 해갔다. 여분의 돈은 유니온페이 카드에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사용했다.
◇ 파견대학의 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등 크기: 169,000 제곱미터 (16.9 헥타르) 위치: 上海市西体育会路189号 기후: 기온 25°C~32°C, 평균 일교차 6.8°C, 평균 강수량 128mm
◇ 대학 주변 환경 및 현지생활 대학 근처에 龙之梦이라는 큰 상가가 있고, 학교 정문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지하철역(虹口足球场, 赤峰路)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 거주 형태, 식사 (상세비용) 기숙사에 거주하며 2인1실을 사용한다. 방 안에는 욕실, TV, 스탠드, 책상, 침대 등이 있고, 1인당 120위안을 내면 WIPI사용이 가능하다. 밥은 근처 식당이나 龙之梦에 가서 먹는 경우가 많고, 근처 식당에서 먹을 경우 1인당 15~20위안, 龙之梦에서 먹을 경우에는 30~40위안 정도가 든다.

◇ 수업, 도서관 학교 정규 수업시간은 8:30~11:50으로 1시간 30분씩 1,2교시로 나뉘어 수업을 한다. 1교시는 8:30~10:00, 2교시는 10:20~11:50으로 쉬는 시간은 20분이다. 반은 1:1 회화와 문장읽기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되고, 수업은 말하기와 듣기가 주를 이루며, 매 단원마다 2~3개의 문법을 배운다.
◇ 교환대학 현지 행정업무 (국제교육처등) 학교에서는 단기연수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매일 실시하여 학생들이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교외로 나가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화~목요일에는 교내에서 학생들은 위한 태극권, 종이접기, 강연 등을 실시한다.
◇ Culture Shock 중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은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놀랐다. 빨간불일 때, 심지어 경찰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고 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또한, 支付宝(Alipay), WeChat pay라는 어플을 사용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하는 것이 신기했다.
◇ 현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교내외) 기숙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1층 로비 카운터에 말을 하면 대체적으로 해결해준다.
◇ 기타 (본인연락처/해외연수블로그/기타파견가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등) 상해외국어대학교는 한국인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영어도 함께 사용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중국어를 크게 잘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연수를 온 한국인이 많아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놓고 온 물건이 있으면 학교 근처에 있는 龙之梦이라는 상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지식과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해외국어대학교는 교환학생, 단기연수를 오는 학생이 많아 인터넷에 검색만하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진 (5장 이상)

7월 6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인솔자와 함께 학교로 이동을 했다. 학교에 도착한 후 2인 1실로 방을 배정 받았고, 수업료를 내면서 학생증과 상해외대 기념 가방 및 티를 제공 받았다. 한국에서 미리 유심을 사온 학생도 있었지만 나는 현지에서 유심을 직접 사서 폰을 개통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학교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龙之梦이라는 상가에서 생필품 등을 샀다. 다음날인 7월 7일에는 반 배정을 위해 1:1 테스트를 거친 후 각자 반을 배정 받았고, 오후에는 가이드를 동반한 학교투어를, 저녁에는 국제교류처 이은화 처장님과 함께 外婆家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향신료 때문에 중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행히도 나와 같이 온 친구들은 모두 중국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많은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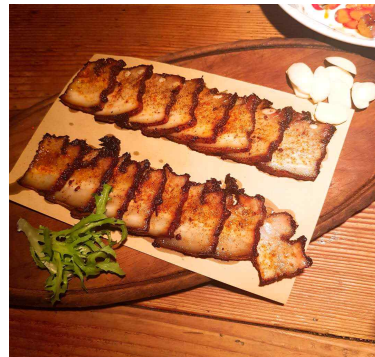
<外婆家 망고빙수>



<外婆家 중국식 감자채볶음>



<우육면>



<外婆家 구운고기>

중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중국 상해에 온 한국인 이라면 무조건 가야한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에 더 아름다웠던 것 같다. 임시정부가 위치해 있는 신천지(新天地)에는 큰 상가와 각종 바가 즐비되어 있어서 임시정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신천지는 낮의 풍경도 분위기 있었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의 야경이 예뻐던 장소 중의 하나였다.

물론 중국에는 신천지 말고도 야경이 아름다운 장소가 더 있다. 신천지, 동방명주, 와이탄 등이 현대식이라면, 예원은 전통미를 가지고 있었다. 같은 야경임에도 그 느낌이 많이 달랐고, 중국의 전통양식으로 되어있는 건물의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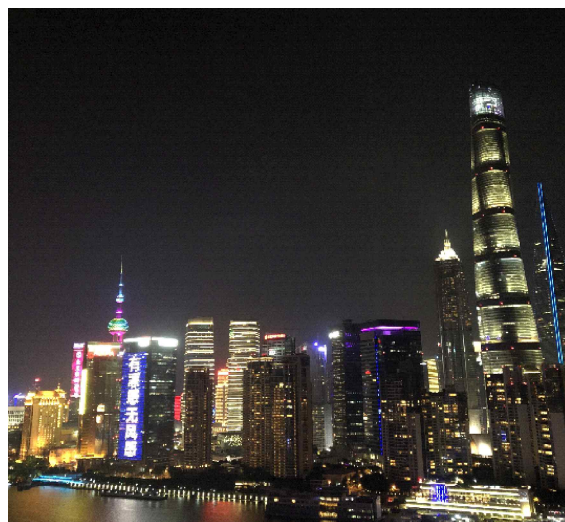
예원은 이전에 몇 번 가봤음에도 야경을 보기위해 1-2번 더 찾아갔다. 그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고, 몇 번가도 아깝지 않은 곳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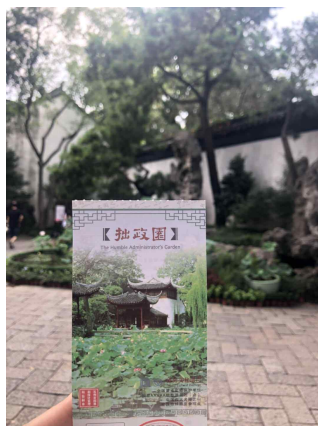


<동방명주>

그리고 중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장소 중 하나로 수향마을이 있는데 상해에는 주가각(朱家角)이라는 수향마을이 있다. 상해외대에서 주가각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30분~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최근에 17호선이 개통되어 편하게 갈 수가 있었다. 주가각뿐만 아니라 모든 수향마을은 강을 끼고 있어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구경할 수가 있다. 나역시 배를 타고 싶었지만 너무 늦게 가는 탓에 배를 타지 못했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주가각의 야경만 보고 기숙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을 가운데 끼고 옆으로 줄서있는 건물의 야경이 너무 이뻐서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각에 간것이 후회되지 않았다.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상해에서만 지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근처에 위치해 있는 쑤저우(苏州)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었다. 그리고 쑤저우의 수향마을인 산탕지에(山塘街)에 들려 주가각에서 타지 못했던 배를 탔다. 비록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봉변을 당했지만 배를 타고 마을을 구경할 수 있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배를 탈 수 있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한달동안 공부, 관광, 체험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이미 가봤던 장소들도 누구와 함께 하나에 따라 늘 새로워 보이고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다. 대학생 마지막 여행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기에 좋았고,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